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August 2025 Issue | Vol. 54

SPECIAL POINTS OF INTEREST

- 6년 만에 최저치: 7월 물가상승률 0.9%로 둔화 — page 1-2
- Arta, 개혁 가속화 — page 3-4
- 마르코스: 필리핀-인도, 양자 간 특혜무역협정 추진 중 — page 4
- 필리핀 2분기 GDP 5.5% 성장 — page 5
- BCDA, PPP 센터, 포로포인트 항구 현대화를 위해 협력 — page 5
- ‘필리핀, 수출 및 산업 개발 전략 재조정해야’ — page 6
- 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WESM 전력가격 상승 — p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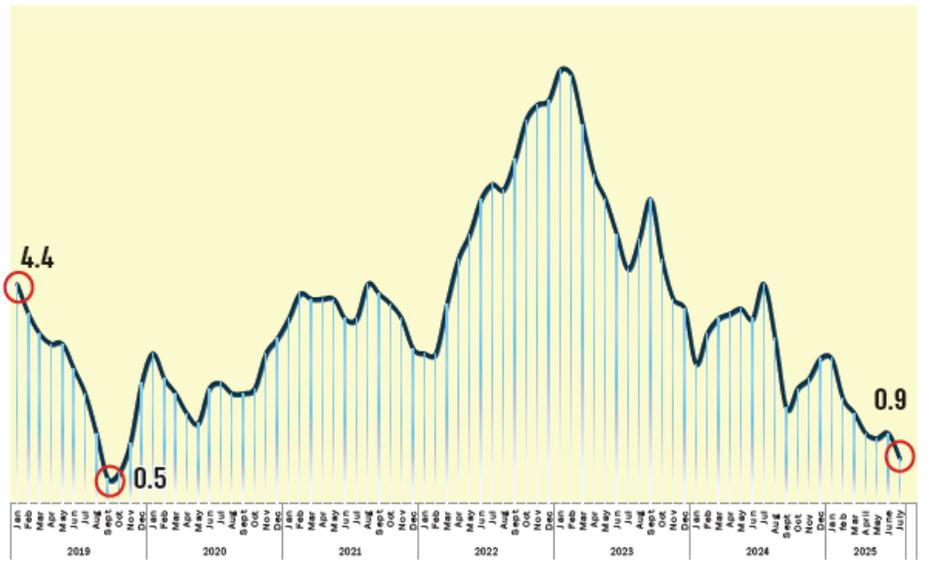
UPCOMING EVENT

- [Sept 25– Sept 26] 아랑카다 필리핀 투자 포럼 2025 — page 7-8

6년 만에 최저치: 7월 물가상승률 0.9%로 둔화

August 06, 2025 | Malaya Business Insight

Inflation
January 2019 - July 2025



Source: PSA

필리핀 통계청(PSA)이 화요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월의 헤드라인 물가상승률은 0.9%로 추가로 둔화되며 2019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식품 및 전력 가격 하락과 지난해 높은 물가 수준에 따른 기저효과 덕분이다.

7월의 물가상승률 둔화는 4개월 연속 완화세를 이어간 것으로,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목표 범위인 2~4%를 크게 밑돌았다.

7월 물가상승률은 6월의 1.4%에서 낮아졌다.

비교 기준이 되는 전년도인 2024년 7월의 물가상승률은 4.4%로 훨씬 높았다.

필리핀 통계청(PSA)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클레어 테니스 마파 국가통계청장은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둔화는 주거, 수도,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항목의 연간 상승률이 6월의 3.2%에서 7월에는 2.1%로 낮아진 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식품 및 비알코올 음료 항목의 물가가 전년 같은 기간의 0.4% 상승에서 올해 7월에는 0.2% 하락으로 전환된 것도 물가 둔화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PSA는 식품 가격(특히 쌀, 채소, 과일)의 0.5% 하락과 전기요금, 교육 서비스, 개인 위생용품 등의 연간 상승률 둔화가 전반적인 물가 하락세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기타 품목군

7월 한 달 동안 물가상승률이 둔화된 기타 품목군으로는 교육 서비스가 5.3%에서 4.3%로, 개인 위생 및 기타 상품·서비스가 2.4%에서 2.3%로 하락했다. [Cont. page 2]

6년 만에 최저치: 7월 물가상승률 0.9%로 둔화

[Cont. from page 1]

한편, 다음 품목군에서는 연간 상승률이 더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 주류 및 담배: 3.8%에서 4.2%
- 의류 및 신발: 1.7%에서 1.8%
- 보건: 2.4%에서 2.6%
- 정보 및 통신: 0.4%에서 0.5%
-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2.1%에서 2.3%

나머지 품목군은 지난달과 동일한 연간 상승률을 유지했다.

경고 vs 안일함

헤드라인 물가상승률이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은 안일함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임금 인상, 태풍에 따른 공급 차질,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잠재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경제 및 투자 특별보좌관인 프레데릭 고 장관은 “인플레이션, 특히 식품 가격의 지속적인 둔화는 필리핀 가계에 절실히 필요한 안도감을 주었다” 며, “이는 식량을 보다 쉽게 접근하고 저렴하게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가정에서 경제 발전의 성과를 체감하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기간 경제 전문가들 역시 정부의 낙관론에 동의하면서도 향후 예상되는 장애 요인들을 지적했다.

큰 승리

eManagement for Business and Marketing Services의 전무이사인 조나단 라벨라스는 7월의 인플레이션 하락을 “필리핀 가계에 큰 승리” 라고 표현했다.

“쌀 가격과 전기요금 하락이 주된 원인으로, 거의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는 가정에 더 많은 재정적 여유를 주고, 시장(palengke)에서도 어느 정도 안도감을 줄 것입니다.” 라벨라스는 말했다. “하지만 너무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2%를 넘기 때문에 기초 경제 지표들은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일부 식품 및 에너지 항목을 제외)은 6월의 2.2%에서 7월에는 2.3%로 소폭 상승했다고 PSA는 밝혔다. 이는 2024년 7월 기록한 2.9%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RCBC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리카파트는,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태풍과 홍수에도 불구하고 2025년 7월 헤드라인 물가상승률이 전년 대비 0.9%로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기저효과의 영향

리카파트는 최근 태풍에 따른 공급 충격이 단기적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을 유발했지만, 전반적인 하락세는 긍정적인 기저효과, 쌀 공급 개선, 엘니뇨 종료 등 덕분에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4년 7월 쌀 관세가 35%에서 15%로 인하된 점도 국내 쌀 가격 억제에 도움이 됐다고 지적했다.

앞으로의 전망과 관련해, 리카파트는 “메트로 마닐라의 일일 최저임금이 최근 50페소 인상됨에 따라, 기업들의 대응 방식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고 말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시절의 관세, 미국의 통화 정책,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 등 세계적인 불확실성도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남은 기간 동안 1~2% 수준의 비교적 온건한 인플레이션이 유지될 수 있으며, 이는 대규모 공급 충격, 강력한 태풍, 유가 급등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하다” 고 리카파트는 말했다. “이는 BSP가 미국 연준(Fed)의 완화적 통화 정책과 보조를 맞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 [Cont. page 3]

6년 만에 최저치: 7월 물가상승률 0.9%로 둔화

[Cont. from page 2]

조만간 다시 1% 상회 전망

“우리는 향후 몇 달간 헤드라인 물가상승률이 점차 상승하여, 8월부터는 전년 대비 상승률이 다시 1%를 넘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최근 태풍의 잔존 효과로 식품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번 달에 쌀 관세 인상안(15%에서 35%)이 승인된다면,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25년 연간 소비자물가지수(CPI) 전망치를 1.9%로 유지하며, 3분기와 4분기 전망치는 각각 1.5%와 2.3%로 보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제재 가능성으로 인한 유가 충격, 관세 인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차질, 그리고 빈번한 기상 악화 등 상승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라고 시큐리티 뱅크는 덧붙였다.

경계 유지 필요

필리핀 상공회의소(PCCI) 역시 이 같은 전망에 동의하며, 인플레이션 하락을 환영하면서도 외부 충격으로부터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CCI 회장 에누나 망지오는 “이러한 낮은 물가상승률을 유지하려면 식품, 에너지, 교통 분야의 공급 충격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며 “물가 상승 둔화는 지난 몇 년간 비용 압박에 시달린 소비자들과 특히 중소기업(MSMEs)에 큰 안도감을 준다” 고 말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물가 완화가 구매력, 소비자 신뢰, 국내 수요를 강화하고, 동시에 신용 환경도 개선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2~3%보다 낮은 현 수준은 통화 완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사업 확장이나 자본 지출을 위한 차입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망지오는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오는 8월 28일 예정된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정책회의에서 25bp(기준점) 금리 인하가 논의될 것으로 광범위하게 예상하고 있으며, BSP 엘리 레몰로나 총재와 재무장관 랄프 렉토 모두 2025년 내 최대 50bp의 추가 금리 인하 여지가 있다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With reports from Ruelle Casto and Irma Isip*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lowest-in-nearly-6-yrs-july-inflation-eases-to-0-9/>

Arta, 개혁 가속화

August 05, 2025 | Andrea E. San Juan | BusinessMirror

BusinessMirror

A broader look at today's business

반(反)관료주의청(Arta)은 필리핀의 대(對)미국 수출품에 부과된 관세율이 이제 지역 내 경쟁국들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국가의 수출 경쟁력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개혁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Arta는 화요일 성명을 통해, 최근 협상된 필리핀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19% 관세율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등과 같이 동일하게 19%의 관세가 적용된 지역 경쟁국들과 동등한 조건에 놓이게 되면서, Arta는 무역 촉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부 서비스를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Arta는 주요 프로젝트인 정부 간 연계기관 효율성 조치 조화를 위한 국가적 노력(Nehemia)을 통해, 물류, 에너지, 광업 등 주요 산업에서 처리 시간, 비용, 요건을 줄이기 위한 부문별 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Arta는 “이번 개혁은 관료주의적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국가의 수출 경쟁력에 핵심적인 부문에서 정부 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 덧붙였다.

[Cont. page 4]

Arta, 개혁 가속화

[Cont. from page 3]

세계 경제가 빠르게 변화하고 에너지 전환 소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필리핀 정부는 광업을 “전략적” 성장 분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반(反)관료주의청(Arta)은 광산업 관련 정부 절차를 전면적으로 개선해 이해관계자들과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Arta는 환경자원부-광산지질국(DENR-MGB)과 협력하여 탐사 및 광물생산공유협정(MPSA)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자 통합 광산 민원창구(eMOSS)는 양해각서(MOA)에 따라 마련된 공동행정지침(JMC)에 포함된 시스템으로, 광업 분야의 신청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접근 방식의 일부다.

Arta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탐사, 운영, 폐광 복구 등 광업의 주요 단계에 걸친 개혁을 주도할 예정이며, e-MOSS 시스템을 통해 전면 디지털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소규모 광산 허가 절차 개혁, 통합 지형도구 도입, 폐광 및 환경 복구를 지원하는 규제 개정 사항 시행 등이 포함된다.

Arta는 “이러한 조치들은 필리핀이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Arta는 정부가 무역 관계를 강화하면서도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규제가 계속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바공 필리피나스(Bagong Pilipinas) 실현을 위한 정부 서비스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고 Arta는 덧붙였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8/05/arta-fast-tracking-reforms/#:~:text=THE%20Anti%2DRed%20Tape%20Authority,exports%20to%20the%20United%20States.>

마르코스: 필리핀-인도, 양자 간 특혜무역협정 추진 중

August 05, 2025 | Anna Felicia Bajo | GMA Integrated News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인도 뉴델리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의 회담 후, 필리핀과 인도 간의 양자 특혜무역협정(PTA)이 현재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양자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5일간의 국빈 방문 중인 마르코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앞서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역 내 지정학적, 경제적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인도와의 더 많은 협력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닐라 주재 인도 대사관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인도의 대(對)필리핀 수출은 3억 5천만 달러에 달했으며, 필리핀의 대(對)인도 수입은 9,23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인도는 2억 5,800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고 대사관은 밝혔다.

인도에서 필리핀으로 수출되는 주요 품목에는 공산품, 자동차 부품 및 액세서리, 송수신 장비, 전기 변압기, 석유 제품, 철강 반가공품, 의약품, 유기 및 무기 화학제품, 전자제품, 플라스틱 및 리놀륨, 쌀, 소고기, 유지 종자, 담배, 땅콩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필리핀에서 인도로 수입되는 주요 품목에는 전기 기계, 반도체, 광석·슬래그·회, 구리, 납, 플라스틱, 진주 및 귀석, 식품 산업의 잔류물 및 폐기물, 동물 사료 등이 포함됩니다. —VBL, GMA Integrated News



President Ferdinand "Bongbong" Marcos Jr. is formally welcomed by President Droupadi Murmu and Prime Minister Narendra Modi at Rashtrapati Bhavan in New Delhi, India, on Tuesday, August 5, 2025. Marcos' visit is expected to yield concrete agreements and renewed commitments that would further enhance the robust partnership between Manila and New Delhi. NOEL PABALATE/ PPA Pool

Source: <https://www.gmanetwork.com/news/money/economy/954876/marcos-ph-india-working-on-bilateral-preferential-trade-deal/story/>

필리핀 2분기 GDP 5.5% 성장

August 07, 2025 | Ian Nicolas P. Cigaral @IanCigaral - @inquirerdotnet



Makati central business district (Inquirer.net)

마닐라, 필리핀 — 필리핀 경제는 물가 상승률 완화로 소비 지출이 촉진되면서 2분기에 소폭 더 빠른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선거 관련 공공 지출 금지 조치로 인해 정부 지출이 억제되었습니다.

6월 말까지의 3개월 동안 국내총생산(GDP)은 5.5% 증가했으며, 이는 1분기 연간 성장률 5.4%에서 소폭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6.5% 성장률에 비해 크게 둔화된 것이며, 시장 기대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최근 인콰이어(Inquirer)가 실시한 경제학자 대상 여론조사에서는 5.6% 성장이 예상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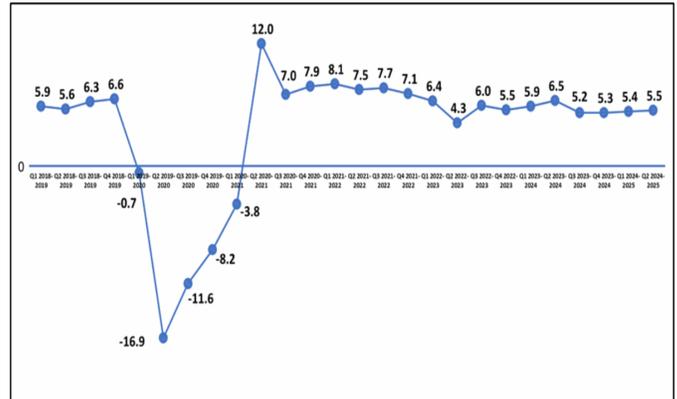
이번 GDP 수치와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 0.9%라는 6년 만의 최저 물가 상승률은 8월 28일 예정된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의 통화정책회의에서 고려될 주요 요소가 될 것입니다.

BSP 총재 엘리 레몰로나 주니어는 이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밝혔다.

올해 2분기 성장률에 가장 크게 기여한 부문은 도·소매업 및 자동차·오토바이 수리업(5.1%), 공공행정 및 국방, 의무 사회보장(12.8%), 금융 및 보험업(5.6%) 등이었다. /dda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539805/philippine-gdp-grew-by-5-5-in-second-quarter>



BCDA, PPP 센터, 포로포인트 항구 현대화를 위해 협력

August 06, 2025 | Joan Villanueva | Philippine News Agency

마닐라 - 기지 전환 개발청(BCDA)은 라 유니온주 포로포인트에 위치한 산페르난도 국제항만 재개발을 위해 민간협력사업(PPP)센터와 협력하기로 했다.

BCDA는 수요일 성명을 통해 이번 항만 프로젝트에 사업개발 및 모니터링 기금(PDMF)에서 7,490만 페소의 잠정 자금이 배정되었으며, 이 자금은 타당성 조사, 시장 분석, 법적·재정적 구조 수립, PPP 거래 지원 및 기타 관련 비용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포로포인트 산페르난도 국제항만의 전면적인 재개발 및 현대화는 현재의 벌크 및 일반화물 전용 터미널을 현대적인 항만 인프라와 물류 시스템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항만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BCDA의 조슈아 빙강(Joshua Bingcang)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북루손 지역은 오랫동안 현대적인 항만 인프라가 부족해 글로벌 무역 흐름에 완전히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전면적인 컨테이너화 구현, 물류 효율화, 지역 산업을 보다 경쟁력 있는 공급망에 연결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이는 포로포인트를 북루손의 전략적 경제 관문으로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BCDA는 2027년 2분기에 착공해 2029년까지 프로젝트를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CDA는 “업그레이드된 항만이 가동되면 광가시안, 라 유니온, 일로코스 지역 산업을 지원하고, 포로포인트 자유무역지대의 물류 투자자 및 국내외 수출 중심 제조업체에 대한 매력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ource: <https://www.pna.gov.ph/articles/1255966>



MODERNIZATION. The San Fernando International Seaport in Poro Point, La Union. The Bases Conversion and Development Authority (BCDA) on Wednesday (Aug. 6, 2025) said it has partnered with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Center for the modernization of the seaport, a project targeted to be undertaken between 2027-2029. (Photo courtesy of the Poro Point Management Corporation)

‘필리핀, 수출 및 산업 개발 전략 재조정해야’

August 06, 2025 | Andrea E. San Juan | BusinessMirror

BusinessMirror
A broader look at today's business

필리핀 정부는 수출 및 국내 산업 개발 전략을 재조정하고, 이 전략이 마닐라와 워싱턴 간에 새롭게 합의된 관세율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알렉산더 마이클 팔마(Alexander Michael Palma) 필리핀대학교(UP) 아시아센터 조교수는 수요일 열린 ‘미국 관세 이후의 아시아: 역내 경제통합은 어디로?’ 라는 온라인 포럼에서 “우리는 필리핀 개발계획(PDP)을 갖고 있고, 거기에는 수출과 국내 산업 개발에 관한 전략적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일부 조치는 계획서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팔마 교수는 국가 전략이 단순히 거시경제 계획과만 일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관세 품목이나 제품 수준에서 관세율이 어떻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미시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크다” 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산 자동차를 무관세로 필리핀 시장에 수입 허용하게 되면 산업 내에서 “왜곡” 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수입은 자동차 개발 프로그램 분류상 23개 이상의 관세 품목(tariff lines)을 포함한다. 이는 얼마나 많은 품목 또는 제품 범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이고, 무역 협정에 포함된 대부분의 제품은 고감도 관세 목록(highly sensitive tariff list)에 속해 있다” 고 그는 말했다.

고감도 관세 목록에 포함된다는 것은, 관세 구조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산업에 자연스럽게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팔마 교수는 덧붙였다.

필리핀에는 ‘국산 자동차’ 는 없지만, 정부는 자동차 부품 산업을 부흥시켜 장기적으로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둔 ‘자동차 개발 프로그램’ 을 운영 중이며, 이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정체돼 있었다” 고 그는 설명했다.

“우리는 적어도 자동차 부품 산업부터라도 다시 활성화시키기를 바라고 있다” 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산 자동차의 무관세 수입 허용은 이 부문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제한”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산 차량과의 “비용 경쟁” 상황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팔마 교수는 경고했다.

나아가 그는, 관세가 없는 상품이 필리핀에 유입되는 것은 “투자 및 고용 기회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고 우려했다.

2025년 7월 22일, 필리핀과 미국 간의 무역 협정이 백악관에서 발표되었다.

페르디난드 R.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공식 방미 일정이 끝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필리핀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을 기존 20%에서 19%로 인하한다고 확인했다.

그에 대한 대가로 필리핀은 미국산 일부 수입품—자동차, 대두 제품, 밀 제품, 의약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지 싱크탱크인 필리핀개발연구원(PIDS)의 최근 연구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청사진을 필리핀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장기적인 불안정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PIDS 보고서의 연구자들이 제시한 전략적 접근 방식 중 하나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필리핀 정부가 기존 무역 협정—현재 협상 중인 협정도 포함—을 통해 국내 제조업체와 기업들이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필리핀 수출품의 비관세 비용을 낮추기 위해 무역 지원 서비스상의 병목 현상도 해결해야 한다” 고 연구자들은 덧붙였다.(출처: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8/06/phl-must-neutralize-trump-unpredictability/>)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8/06/phl-must-recalibrate-export-and-industry-development-strategy/>

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WESM 전력가격 상승

August 07, 2025 | Brix Lelis | The Philippine Star

마닐라, 필리핀 — 루손 지역의 주요 발전소들이 고장으로 가동을 중단하면서 공급 여유가 줄어들어, 7월 필리핀 도매 전력시장(WESM)의 전력 가격이 상승했다.

필리핀 독립 전력시장 운영자(Independent Electricity Market Operator of the Philippines, IEMOP)에 따르면, 7월 WESM의 평균 전력 가격은 킬로와트시(kWh)당 3.86페소에서 3.99페소로 3.1% 상승했다.

IEMOP는 여러 석탄 및 가스 발전소의 정지로 인해 전체 전력 공급량이 월 기준 21,432메가와트(MW)에서 20,754MW로 3.2%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력 수요 역시 낮은 기온과 우기 시작의 영향으로 14,545MW에서 13,812MW로 5% 감소했다.

6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의 공급 기간에 해당하는 WESM 전력 가격은 이달 소비자 전기요금에 반영될 예정이다.

IEMOP가 운영하는 WESM은 전력을 상품처럼 사고파는 중앙화된 플랫폼으로, 공급과 수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필리핀 전역의 주요 3개 섬 지역에서 7월 전기요금이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슷한 전력 수급 상황에 따른 결과다.

루손 지역의 도매 전력시장(WESM) 평균 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3.91페소에서 3.92페소로 소폭 상승했다.

비사야 지역의 평균 가격은 11.7% 급등해 kWh당 3.93페소에서 4.39페소로 올랐고, 민다나오 지역도 kWh당 3.54페소에서 3.80페소로 7.2% 상승했다.

최근 잇따른 전력망 경보 상황에 따라, IEMOP(Independent Electricity Market Operator of the Philippines)의 거래 운영 책임자인 이시드로 카초 주니어는 8월 공급 기간에도 WESM 가격이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카초는 전날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가 예측한 바로는 평균 kWh당 4.50페소에서 5페소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비사야 지역은 이미 kWh당 0.40페소가량 상승한 수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번 달 들어 네 번째로, 비사야 전력망은 어제 다시 ‘옐로 경보(yellow alert)’ 상태에 들어갔다. 이는 최소 17개 발전소의 강제 가동 중단과 시스템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다.

‘옐로 경보’는 예비 전력 용량이 전력망의 예비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 발령된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8/07/2463587/plant-outages-push-wesm-prices-higher>

[다가오는 행사] 아랑카다 필리핀 투자 포럼 2025

2012년부터 *아랑카다 필리핀 포럼(Arangkada Philippines Forum)*은 필리핀의 투자, 경제 개혁 및 포용적 성장에 관한 고위급 대화를 위한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올해 연례 포럼은 **2025년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파사이 시 마리오프 그랜드 볼룸(Marriott Grand Ballroom)**에서 개최되며, 정부, 민간 부문, 학계 및 언론의 저명한 리더 수백 명이 모여 투자 유치 및 유지 전략과 기업 성장 촉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포럼은 **JFC(합동 외국상공회의소)**가 선정한 7대 ‘성장 유망’ 부문인 ▲농기업(agribusiness), ▲인프라, ▲제조 및 물류, ▲관광, ▲핵심 광물, ▲창의산업, ▲정보기술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IT-BPM)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포럼 첫날에는 정부 및 기업의 주요 인사들의 연설과 7개 부문별 분과 세션이 진행되며,

둘째 날에는 기업 간(B2B), 기업-정부 간(B2G)의 독점적인 네트워킹 기회, 부스 전시를 통한 실시간 제품 및 비즈니스 시연, 그리고 정부 서비스 및 투자 관련 주제에 대한 심층 산업 토크가 마련됩니다.

자세한 정보 및 스폰서십 문의는 아랑카다 필리핀 웹사이트의 [브리퍼(Briefer)], [후원 등급(Sponsorship Tier)], [확인서(Confirmation Form)]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는 **KCCP 사무국(전화: (632) 8885-73-42 / 이메일: info@kccp.ph)**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BRIEFER] <https://drive.google.com/file/d/1H4eAL1QQNvfXsRkLFk7nZ-XeptMF3YNK/view>

[SPONSORSHIP] https://drive.google.com/file/d/1v5Kbk5-iaHTLV_WqTbnF5Q1k_Dv78u2/view

[CONFIRMATION]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Xuqm9Xp--Ad4SWHdowgcrC_OGtu0y-PZCQvnwSbvt2Xuraw/viewform



The average WESM price in July rose by 3.1 percent to P3.99 per kilowatt-hour from P3.86 per kWh in June, according to the Independent Electricity Market Operator of the Philippines.

Philstar.com / File Photo

ARANGKADA PHILIPPINES INVESTMENT FORUM 2025

MARRIOTT GRAND BALLROOM
SEPTEMBER 25-26, 2025

KEYNOTE SPEAKERS



HON. FREDERICK GO
SECRETARY
OFFICE OF THE SPECIAL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INVESTMENT
AND ECONOMIC AFFAIRS



HON. RALPH RECTO
SECRETARY
DEPARTMENT OF FINANCE

PANELISTS, MODERATORS, AND PRESENTERS



HON. ERNESTO PEREZ
SECRETARY
ANTI-RED TAPE AUTHORITY



GONZALO VARELA
LEAD ECONOMIST AND
PROGRAM LEADER
WORLD BANK



PAULO MERCADO
PRESIDENT
CREATIVE ECONOMY
COUNCIL OF THE PHILIPPINES



ATTY. MIKE TOLEDO
CHAIRMAN & PRESIDENT
CHAMBER OF MINES OF THE
PHILIPPINES



**DR. ROEHLANO
BRIONES**
SENIOR RESEARCH FELLOW
PHILIPPINE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DR. ENRICO BASILIO
DIRECTOR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CENTER FOR
POLICY AND EXECUTIVE
DEVELOPMENT



ROSEMARIE RAFAEL
CHAIRPERSON & PRESIDENT
AIRSPEED



DR. DANILO LACHICA
PRESIDENT
SEMICONDUCTOR &
ELECTRONICS INDUSTRIES IN
THE PHILIPPINES
FOUNDATION, INC.



**MICHAEL ARCATOMY
GUARIN**
CO-HEAD OF ADVISORY
R.G. MANABAT & CO.



**GRACE MIRANDILLA-
SANTOS**
INDEPENDENT ICT POLICY
RESEARCHER AND AUTHOR
OF THE ARANGKADA
BROADBAND POLICY BRIEF



DIR. LILIAN SALONGA
OFFICER-IN-CHARGE
DTI-CREATIVE INDUSTRIES
DEVELOPMENT OFFICE



LOTUS POSTRADO
COUNTRY DIRECTOR
BRITISH COUNCIL



DR. ENRICO PARINGIT
EXECUTIVE DIRECTOR
PHILIPPINE COUNCIL FOR
INDUSTRY, ENERGY AND
EMERGING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REGISTER NOW!

Scan the QR Code or visit our event website at
www.arangkadaphilippines.com/forum2025 to register.
For inquiries, please email us at forum@arangkadaphilippines.com.

www.arangkadaphilippines.com

/Arangkada Philippines

/arangkadaphilippines

/ArangkadaPH

/Arangkada Philippines

SPONSORS

PLATINUM



G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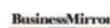
SILVER



EVENT PARTNERS



MEDIA PARTN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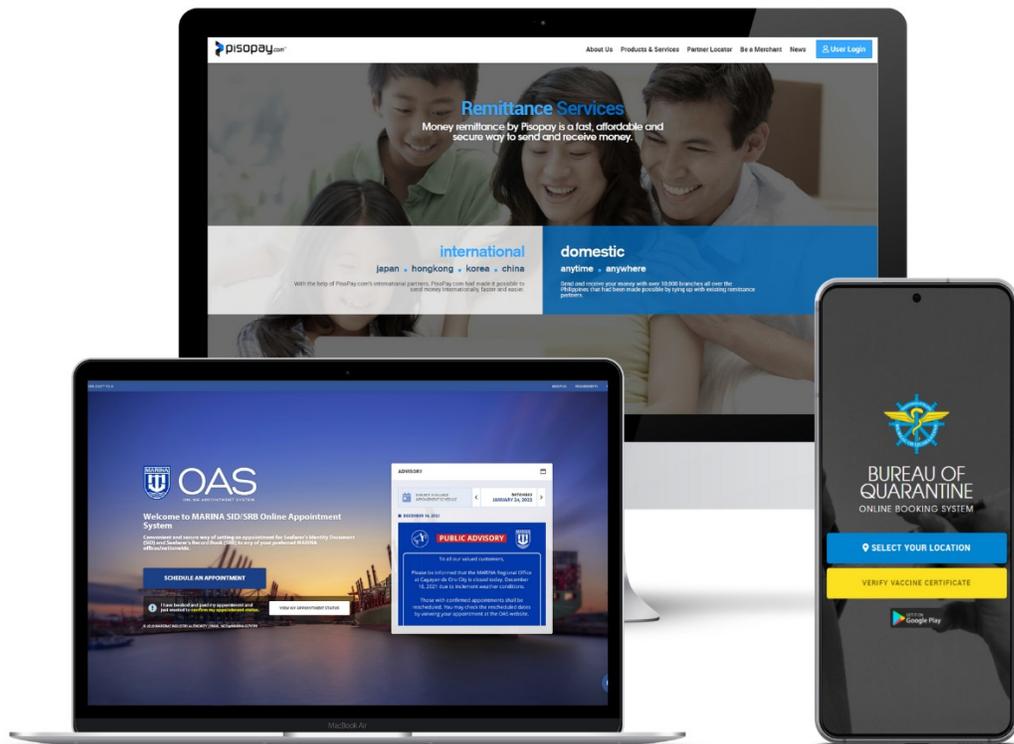
ORGANIZERS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Elevating the definition of Fintech Standards



CONTACT US

- (02) 8242 8153
- info@pisopay.com.ph
- <https://www.pisopay.com.ph>
- Pisopay Bldg, 47D Polaris, Makati, 1209 Metro Manila

